

#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절반 전력 아껴 돈 번다

### 시, 한전·삼성·LG전자 등과 손잡고 '수요 반응형 에너지 절감' 22개 단지 대상...평균 사용량 10% 아끼면 매주 1000원 보상

에너지 자립도시를 내건 나주시가 한국전력, 삼성전자·LG전자 등과 손잡고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에너지 절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나주시는 다음 달부터 빛가람동 공동주택 22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요 반응형(DR·Demand Response) 에너지 절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전과 손잡고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서울사와 경남도에 이어 나주에서 세 번째로 추진되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수요 반응형 에너지 절감 대상 아파트 단지는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전력 원격 검침기가 있는 22개 단지이다. 이들 단지는 혁신도시 전체 세대(3만 세대)의 절반 가량인 1만6947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수요 반응형(DR) 에너지 절감은 미리 약정한

대로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현금(포인트)을 받는 방식이다.

평일 열흘 가운데 사용 전력량이 가장 많은 하루와 가장 적은 하루를 제외하고 남은 8일의 평균 사용량에서 10% 이상을 절감하면 된다.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면 매주 1000원 이상 현금 보상(포인트)을 얻을 수 있다. 60회 기준 연간 최고 6만원까지 현금을 쌓을 수 있다. 5000원 이상 적립하면 카카오톡 선물 포인트로 활용할 수도 있다.

수요 반응형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싶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다음 달 6일까지 나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나주시 에너지 신산업과에 내면 된다.

공동주택에 전기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검침기(스마트 미터기·HG-2000e)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절감 목표와 전력 사용량은 ㈜헤리트가 개발한 모바일 앱 '에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1~2회에 걸쳐 전주에 가장 전력 사용량이 많았던 시간대에 절감 목표가 전해진다. 전력 사용량은 월별, 일별, 시간대별로 조회할 수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3만여 세대의 절반인 1만5000세대가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42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시간당 0.1kW 정도를 감축하면 1500kW 규모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연간으로 치면 9만kW의 전력이 생기게 된다.

이를 지난해 하반기 기준 나주지역 한 가구의 시간당 평균 전력 사용량(215kW)으로 나누면, 약 42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 사업은 한전과 삼성전자, LG전자, ㈜헤리트와 함께 추진한다.

나주시는 에너지 절감 사업 참여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목표 달성 보상을 제공하는 등 전반을 총괄한다.

한전은 공동주택 실시간 에너지 정보를 수집·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력 사용량 조회를 통해 1인 가구 안부를 살피거나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시행 등을 차례대로 펼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위한 스마트 가전제품 자동 절전 기능(오토DR)을 개발할 계획이다. 헤리트는 참여 가구 모집, 성공 보상 지급,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DR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화 체계 정착, 혁신도시 공공기관·공동주택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건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지키며 보상도 받을 수 있는 DR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개인택시조합 목포지부장 조합비 횡령 혐의로 피소

전남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목포시지부장이 전남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목포시지부장인 A(53)씨가 지난 3월 전남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지부장이 지난 3월 15일 목포시지부의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하며 전남도 운송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갔지만, 지난 12·13일 별인 목포시지부 정기 감사에서 A지부장이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적혔다.

목포시지부 운영위원장인 고소인 B씨는 또 "올해 상반기 목포시지부 소속 개인택시 양도 과정에서 A지부장이 양도를 요청하는 조합원에 우선 양도 해주는 조건으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A지부장은 임기 4년의 개인택시조합 목포시지부장으로 지난 1월 선출됐다.

목포시지부에는 923명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억 5000만원가량이다.

목포시지부는 지난 3월 택시 호출비(콜비) 1000원을 받기 시작했다. 여객자동차 플랫폼 가맹사업자인 카카오T가 호출비를 받는 택시기사들에 대해 호출 배정을 배제하자 A지부장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전남도 운송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A지부장은 도 운송조합에 300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지부장은 광주일보 취재진에 "전남도 운송조합은 카카오 문제로 A지부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조합 이사장 날인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도 운송조합에 돈을 빌리거나 돌려준 사실 자체가 없고 카카오T에 소송을 걸 계획도 없었다"며 "개인택시 양도도 순번대로 처리하기에 우선 양도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목포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한 뒤 A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



광양 중앙도서관이 중·장년층의 슬기로운 노후 설계를 위해 '신(新)중년 맞춤형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인문학강독 동아리 활동 모습. <광양시 제공>

## 신중년 노년설계 도서관에서 하세요

### 광양 중앙도서관 맞춤형 평생학습

광양시 중앙도서관이 광양시 인구 43%를 차지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노후 설계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지난해부터 '신(新)중년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어와 독서, 자격증, 공예 등 다양한 분야 자기계발과 사회활동 재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전문 강좌를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페인어, 인문학 강독 '화요문학회', 부동산 경매·관리분석사 과정, 재봉틀 생활소품 만들기 등 4개 강좌를 운영했다.

이들 강좌에는 641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중앙도서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입

문과 투자 실무 등 과정을 세분화해 총 5개 강좌를 운영한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에 다음 달 게재할 예정이다.

전문 강좌 외에도 중앙도서관은 '시민작가 양성사업'의 하나로 신중년·노년층의 창작 활동을 돕고 있다.

참가자들은 큰글자책 그림 에세이 작품집을 발간하고 원화, 작품집 등을 전시할 기회를 얻는다.

중앙도서관은 신중년들의 독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 공간 지원, 우수동아리 도서 구입비 지원, 동아리 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또 찾아가는 도서 대출 서비스와 큰글자책 북꾸러미 대출 등도 운영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완도군과 소안농협이 완도 화흥포항과 노화 동천항, 소안항을 야간에 오가는 여객선을 운항한다. 지난 24일 첫 야간 출항한 '민국'호. <완도군 제공>

## 완도 노화~소안도 오가는 야간 뱃길 열렸다

### 군, 연간 8억원 투입 야간 운항

완도군이 노화도와 소안도를 야간에 오가는 여객선을 지난 24일부터 운항하기 시작했다.

완도군과 소안농협은 지난 5월 9일 맺은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완도 화흥포항을 출발해 노화 동천항을 거쳐 소안항에 이르는 야간 시간대 여객선을 운항했다.

화흥포항부터 소안항까지 12.5km 구간은 편도 1시간가량 걸린다.

화흥포와 소안을 오가는 여객선은 총 3척(대한·민국·만세호)이다. 대한호는 600명 차량 73대를 수용할 수 있고, 민국호는 700명 73대, 만세호 300명 62대 등 규모이다.

야간 운항 여객선은 소안항에서 오후 7시 50분 출항하고, 화흥포항에서는 밤 9시에 배가 떠난다. 화흥포항에서 밤 9시에 출항한 배는 소안항에 밤

10시에 도착한다.

섬 주민이라면 편도 1000원에 여객선을 탈 수 있고, 완도군민(체도권 주민)은 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야간 운항 확대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이다. 완도군은 연간 군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고, 소안농협·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 등과 협업해 야간 운항을 확대하게 됐다. 앞서 약산·당목항-금일 일정항 구간이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열린 야간 뱃길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여객선 야간운항으로 약 1만 여명에 달하는 노화, 소안, 보길 주민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상교통 활성화로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입도객이 늘어나 섬 관광·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목포해수청 여름 휴가철

###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5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22일간 연안 여객선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휴가철을 맞은 이 기간 여객선 운항 횟수는 8710회로, 이전 같은 기간보다 350회가량 증편될 것으로 목포해수청은 내다봤다.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가량 증가한 41만7000명으로 예상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